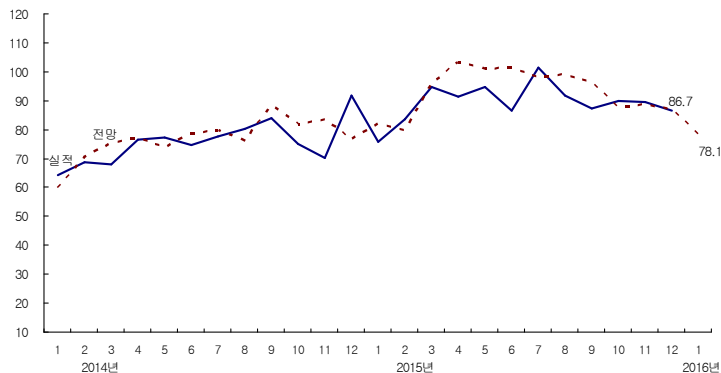


2015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2월 CBSI 전월비 2.8p 하락한 86.7 기록
2개월 연속 하락, 6개월 내 최저수준

- 2015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2.8p 하락한 86.7을 기록함.
 - CBSI는 올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에 13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1.3을 기록했는데, 8월 이후에는 상승세가 한 풀 꺾이며 5개월 연속 90선 주위에서 등락을 반복함.
 - 11월에 전월비 0.4p 하락한 CBSI는 12월에도 하락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지수가 6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 더욱이 연말에는 공사발주 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2월 CBSI가 하락한 것은 다소 이례적임. 이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음을 의미함.
 -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CBSI 상승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주택경기 호조세가 최근 들어 공급과잉, 금융정책 기조 변화, 시중금리 인상 등에 의해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실제로 12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토목공종 지수가 소폭 개선된 반면, 건축공종 지수는 악화되었는데, 특히 주택 지수가 크게 악화된 최근의 주택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음.

< 건설경기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수는 하락하였음.
 - 대형기업 지수는 7월에 125.0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12월에는 전월비 7.7p 상승한 100.0을 기록해 1개월 만에 기준선(100.0)을 회복함.
 - 중견기업 지수는 10, 11월 기준선을 상회했었는데, 12월 들어서는 전월비 9.1p 하락한 93.8을 기록해 3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8.1p 하락해 63.0을 기록함. 기업 규모별로 볼 때 여전히 가장 낮은 체감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규모별 ·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 >

구 분	2015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5년 12월		2016년 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3.5	94.9	91.4	94.6	86.7	101.3	91.6	87.2	89.9	89.5	86.7	86.9	78.1
규모 별	대형	100.0	115.4	108.3	115.4	100.0	125.0	107.7	100.0	92.3	100.0	84.6	92.3
	중견	90.6	103.1	94.6	84.2	91.9	94.7	91.9	93.9	102.8	102.9	93.8	84.4
	중소	56.0	61.5	67.9	82.0	65.3	80.9	72.5	64.6	63.3	71.1	63.0	54.3
지역 별	서울	98.0	107.9	102.5	103.0	97.4	115.2	100.5	97.2	100.6	98.2	99.0	88.7
	지방	62.2	75.1	75.6	82.6	71.0	80.4	78.4	72.4	74.3	66.2	88.0	59.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6년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치 대비 8.6p 낮은 78.1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1월에는 건설경기가 현재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 감소를 비롯해 통상 호한기 공사물량 감소로 인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때 2016년 1월에도 CBSI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12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기업이 전월보다 0.8p 상승한 99.0을 기록해 비교적 양호했으나, 지방기업은 9.7p 하락한 66.2를 기록해 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기업 지수는 지난 7월과 8월 그리고 10월에 기준선(100.0)을 넘어 양호

했으나, 11월에 2.4p 하락한 98.2를 기록함. 12월에 지수가 0.8p 상승함으로 써 기준선(100)에 근접한 99.0을 기록함.

- 한편, 지방기업 지수의 경우 전월보다 9.7p 하락한 66.2를 기록해 지수가 10개월 만에 다시 60선으로 하락함. 연말 지방기업의 체감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15년 12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 99.2 기록

- 2015년 12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0.2p 하락한 99.2를 기록함.
 - 신규공사 수주는 지난 8월 기준선(100.0)를 넘어서 103.9를 기록한 이후 9월과 10월 각각 91.3, 100.6을 기록해 기준선 100.0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함.
 - 11월에 들어와 다시 지수가 1.2p 하락한 99.4를 기록해 2개월 만에 다시 지수가 기준선(100.0) 아래로 떨어졌으며, 12월에도 0.2p 하락해 2개월 연속 감소함.
 - 지수가 기준선(100.0)에 근접하여 지난 11월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상 연말에 공사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임.
- 공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80선 후반에서 90대 초반대를 기록함. 토목과 비주택 건축의 등락은 전월에 비해 1~2p로 크지 않은 가운데, 주택이 전월보다 9.3p나 하락해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 주택 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112.0, 102.6으로 기준선 100.0을 넘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12월에는 전월 대비 9.3p 하락한 93.3을 기록,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비주택 건축공사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1.0p 하락한 89.6을 기록, 한달 만에 다시 90선에서 후퇴함.
 - 한편, 토목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2.2p 상승한 86.6을 기록, 지수가 2개월 연속 개선된 모습을 보임. 다만, 지수가 기준선 100.0에 미치지 못하며, 80선에 불과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기업 규모별로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의 지수는 기준선(100.0)을 넘어서 123.1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견과 중소기업의 지수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는 전월 대비 7.7p 상승한 123.1을 기록, 기준선(100.0)을 넘어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보다 14.2p 하락한 96.9로 한달만에 지수가 기준선(100.0) 아래로 떨어짐.
 - 한편,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6.5p 상승한 73.9를 기록, 지수가 4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함.

< 신규 공사수주 BSI >

구 분		총합	구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99.2	123.1	96.9	73.9	115.9	73.2
	전망	90.2	115.4	93.8	56.5	105.6	65.6
토목	실적	86.6	107.7	81.3	68.1	99.6	65.7
	전망	83.2	100.0	87.5	58.7	92.7	67.3
주택	실적	93.3	107.7	103.2	65.2	107.3	70.8
	전망	86.1	92.3	100.0	63.0	95.0	70.8
비주택	실적	89.6	115.4	96.9	51.1	110.8	55.5
	전망	88.9	107.7	100.0	54.3	104.3	63.8

주 : 실적은 2015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6년 1월 예측지수임.

- 한편, 2016년 1월 신규 공사수주 전망지수는 2015년 12월보다 9.0p 하락한 9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통상 1월에는 연말 밀어내기 공사 물량의 해소 및 흑한기의 영향으로 수주가 감소하는데, 이러한 계절적인 영향이 전망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주택 수주의 전망지수가 2015년 12월보다 7.2p 하락한 86.1로 가장 감소가 깊은데, 최근 미분양 물량 급증과 관련한 부동산 경기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 수주는 2015년 12월보다 0.7p 하락한 88.9로 2015년 12월 지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 한편, 토목 수주의 경우는 3.4p 하락한 8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건설공사 기성 지수 98.4 기록, 전월보다 6.7p 상승
수주잔고 지수는 93.4 기록, 전월보다 2.9p 상승

- 12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대형기업의 공사 진행 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6.7p 상승한 98.4를 기록함.
 - － 건설공사 기성지수는 지난 8~10월 기준선(100.0)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11월에 전월보다 13.4p나 하락한 91.7로 지수가 급격히 악화됨. 12월에는 지수가 6.7p 반등한 98.4를 기록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임.
 - － 대형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23.1p 상승한 115.4로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함.
 - － 중견기업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2.8p한 100.0을 기록함. 지수가 기준선(100)으로 전월보다 비슷한 수준의 기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 중소기업 지수의 경우 전월보다 1.7p 하락한 76.6을 기록함.
 - － 한편, 2016년 1월 전체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망치는 88.9로 90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 공사 진행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12월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2.9p 상승한 93.4를 기록함.
 - － 비록 전월보다 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준선(100)에 이르지 못해 업체들이 체감하는 수주 잔고 상황이 전월에 비해서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 대형기업의 수주잔고 지수가 123.1을 기록하여 수주잔고가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90.6, 61.7을 기록하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2016년 1월 전체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는 91.2로 잔고 상황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건설공사 기성 및 수주잔고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건설공사 기성	실적	98.4	115.4	100.0	76.6	109.4	81.2
	전망	88.9	100.0	90.6	73.9	96.2	76.7
수주 잔 고	실적	93.4	123.1	90.6	61.7	113.5	61.8
	전망	91.2	115.4	96.9	56.5	107.3	65.6

주 : 실적은 2015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6년 1월 예측지수임.

- 한편, 12월 자금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수가 96.5로 지난달(96.6)과 비슷한 수준임. 자금 조달 지수는 86.0로 지수가 소폭(1.9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 지수는 지난 11월에 전월보다 3.8p하락한 96.6으로 지수가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짐. 12월에는 전월과 거의 동일한 96.5를 기록하여 회복세를 시현함.
 - － 한편,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보다 1.9p 상승한 86.0을 기록해 지수가 소폭 개선됨. 다만, 지수가 개선되었어도 여전히 80선에 머물러 연말 건설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96.5	107.7	106.3	72.3	108.2	77.8
		전망	92.1	100.0	100.0	73.9	103.4	73.2
	자금조달	실적	86.0	100.0	93.8	60.9	97.2	67.3
		전망	83.8	92.3	87.5	69.6	90.8	71.5

주 : 실적은 2015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6년 1월 예측지수임.

끝